

총선후보 유세지원 나선 스타들

이영애·최명길·김영철 등 가족·지인 지지 적극 호소

“연예인이 지원유세를 해주면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관심과 호감을 사기에 좋다. 정치인들이 평소엔 지인을 통해 연예인들과 친분을 쌓고 싶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족이면 가장 확실하다.”(정치권 관계자)

선거 때마다 유명 연예인의 지원 유세가 유권자의 눈길을 모은다. 이번 4.13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 화제를 모은 연예인은 아무래도 한류스타 이영애다. 이영애는 원로배우 문화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씨의 삼촌이다. 이영애는 2012년에도 남편과 함께 정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선 적이 있다.

이영애는 앞서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의 선거사무소도 방문했다. 이 후보 측은 8일 “(이영애가) 선거활동을 해온 이 후보의 부부를 응원하고 선거사무원들도 격려했다”고 공개했다. 텔런트 최준용과 이영범도 이날 이 후보의 지원 유세에 합류했다. 개그맨 최병서·이상은, 텔런트 김영철, MC 이상용이 이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섰다.

텔런트 최명길은 남편인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을 도와 막바지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총선 전 마지막 주말 국민의당의 켈러인 연두색 의상을 입고 당 후보들의



텔런트 최명길은 남편인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을 도와 당 후보들의 선거를 지원하러 군산, 익산, 전주, 남원 등을 돌았다.

선거를 지원하러 군산, 익산, 전주, 남원 곳곳을 돌았다. 최명길은 2011년 재보궐 선거 당시 출산 보름 만에 남편의 유세장에 나타난 바 있다. 2004년 선거에서는 ‘병성황후’ 의상을 입고 유세장을 찾았다. 영화배우 안재섭과 우현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후보를 지지했다. 두 사람은 우 후보의 연세대 후배로 재학시절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하는 별다른 지원유세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편과 사전투표를 함께 하면서 유권자의 눈길을 끌었다. 아내로서 출신 MC 김경란은 남편 돕기에 적극적이다. 김상민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현장을 함께 누비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김일동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인 텔런트 송일국도 마찬가지로 유세 현장을 직접 뛰었다.

민은 새누리당 김상민 후보를 지원했다. 텔런트 전원주는 친분이 있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와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 지원 유세에 가세했다. 텔런트 정홍채는 새누리당 김연욱 후보, 개그맨 양원경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 텔런트 윤용현은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를 지원했다. MC 박정숙은 남편인 새누리당 이재영 후보의 거리유세를 도왔다.

지상욱 새누리당 후보의 부인인 텔런트

텔런트 선우영여와 개그맨 김수용·최영

/이성주기자



익산중학교 제58회 춘계 검도대회 단체전 3위

익산중학교 검도부가 제58회 춘계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 참가해 단체전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익산중은 예선에서 경기 퇴계원중, 서울 성남중, 경북 문화중을 잇따라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경북의 형남중학교에 0대4로 패배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한편 익산중 검도부 주장인 김기원(3학년) 선수는 인상 깊은 활약으로 대회 감투상을 수상해 기쁨을 더했다. 익산중학교 이종재 감독은 “각종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입상하고 있어 5월에 열리는 소년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남은기간 동안 선수들 부상방지와 전력향상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군산시 전북도민체육대회 추진상황 점검

군산시는 오는 4월29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16전라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월명운동장 일원에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체육회 관계자들과 연출대행업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군산시는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관계기관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분야별 철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홍보배너기와 홍보탑 설치 등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체육회의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회로 학생부와 청년부, 일반부로 나뉘어지며 총 35개 종목에서 약 일 만여 명의 선수단이 14개 시, 군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여자프로농구 FA자격 선수9명,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

여자프로농구(WKBL)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은 선수 13명 가운데 은퇴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맺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1일 “총 13명 중 4명(이미선·하은주·김유경·박은진)이 은퇴를 선택했고, 김단비(26)를 비롯한 9명이 원소속구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35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평균 12.2점을 넣는 등 득점 순위로는 8위에 올라 FA 최대어로 꼽힌 김단비는 인천 신한은행과 1년 총액 2억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연봉은 지난 시즌과 동일하다.

슈터 김연주는 계약기간 2년, 연봉 1억원에 사인했다. 신한은행은 신정재(36), 하은주(33) 등 골밑 기동력이 은퇴를 해 새롭게 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김단비를 잡아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에는 허은지와 1년 1억원, 최희진과 2년 7000만원에 각각 계약했다. 허은지와 최희진의 연봉은 전년 대비 각각 3000만원, 1000만원 올랐다.

6명의 FA가 있었던 KB국민은행은 은퇴한 김유경을 제외한 5명과 모두 계약을 미쳤다.

FA 가운데 은퇴한 선수는 이미선(삼성생명), 하은주(신한은행), 김유경(국민은행), 박은진(KEB하나은행) 등 4명이다. /김민근기자

첫 우승 앞둔 레스터시티 홈 최종전티켓값 폭등

레스터 시티가 첫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을 목전에 둔 가운데 이를 직접 지켜보려는 팬들로 티켓값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2일(한국시간) 레스터 시티의 마지막 홈경기 티켓이 비싼 값에 재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레스터 시티는 21승9무3패(승점 72)로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그동안 우승권과 거리가 멀었던 레스터 시티는 남은 5경기에서 3승만 추가하면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다.

레스터 시티는 오는 8일 에버턴과 안방 최종전을 갖는다. 마지막 홈 경기이자 우승이 확정될 수도 있는 경기인지라 이를 둘러싼 팬들의 티켓 구매전쟁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BBC에 따르면 에버턴전 안포 티켓은 약 3000파운드(약 490만원) 수준, 2장에 1만5000파운드(약 2450만원)까지 좌석도 등장했다. 평소보다 수십배가 비싸다.

팬들은 구단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자신들이 골드 회원 자격을 갖췄지만 티켓 예매조차 할 수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단측은 “일례 가격보다 비싸게 티켓을 파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레스터 시티 대변인은 “축구 티켓의 무단 판매를 영국법상 형사 범죄에 속한다”고 경고했다. /김민근 기자

슈주 예성, 10년만의 솔로앨범 'Here I Am' 발표

그녀 '슈퍼주니어'의 예성(32)이 10년 만에 솔로앨범을 발표한다.

예성은 19일 첫 번째 미니앨범 '히어 아이 엠(Here I Am)'을 공개하고 솔로가수로 나선다.

슈퍼주니어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후 보컬 유닛 K.R.Y.와 너 아니면 안 돼 '딱지' '꿈을 꾸다' 등 다수의 드라마 OST로 뛰어난 가창력과 음색을 자랑한 멤버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예성 홈페이지와 바이럴 SM타운 계정을 통해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세운 SM엔터테인먼트 산하의 슈퍼주니어 단독 레이블 '레이블 S'를 통해 발매된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에도 나온다. /정해은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